

# 원희룡 장관, “철도정책을 요구하는 파업 부적절, 즉각 중단”

## - 파업으로 국민 이동에 큰 불편, 안전사고 우려…비상수송 철저히 시행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7일(일) 오후 2시 서울역을 방문하여 파업 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파업 대응을 위해 투입된 군 대체인력을 격려했다.

\* 時/所/參 : 9.17(일), 14:00 ~ 15:00 / 서울역 / 국토부 장관, 코레일 사장 등

□ 철도노조 파업 4일차인 9월 17일(일) 09시 기준, 파업 참가율\*은 29.5%이며, 09시 기준, 열차는 평시대비 80.1%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.

\* 코레일 출근 대상자 27,305명 중 8,058명 파업 참여

□ 먼저, 원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, “4일째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크고, 무엇보다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”이라면서, “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,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철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원 장관은 “철도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며, 특히,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”면서, “철도노조는 국민 불편과 경제 발목을 잡는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”을 촉구하였다.

□ 이어서 원 장관은 자리를 이동하여 비상수송을 위해 투입된 군 대체인력과 이야기를 나누고, 이들을 격려했다.

○ 원 장관은 “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에서 적극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”면서, “비상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9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